

●서용좌 전남대 독문과 명예교수 작품집 2권 출간

“날마다 시작하고 날마다 미완성인 인생, 영원히 미완성인 인생에는 플롯이 없다. - 그런 마음으로 쓰는 글이다 보니 소설에서 플롯을 기피하게 되고, 발단에서 결말에 이르는 구조를 외면하게 되어 소설쓰기의 공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 내 손을 떠난 글들에 부끄러움은 더 해만 갑니다. 쓰지 않을 수 없는 강박일까요, 아예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부족함을 잘 알지만, 고민을 해도 달리 더 어쩔 수도 없기에, 부족한 대로 글을 내보냅니다. 더 잘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겸손일까 합니다.”



- 소설집 '날마다 시작' 창작 노트 중



새로 나온 책

▲음식과 연출 그리고 시=이성희 저자
조선이공대학교 교수인 이성희 시인의 시집 '음식과 연출 그리고 시'가 출간됐다. 이성희 시인의 작품은 한국적인 서정성을 바탕으로 순결한 정신을 추구하고 있다. 조선이공대학교 프랜차이즈 창업 경영과에서 음식 메뉴 개발을 강의하는 이 시인은 음식을 소재로 하는 음식 시와 주변의 서정을 정신적 내면으로 구성해 시집을 상재했다. 시인의 작품세계는 이러한 내면 위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깊은 사유의 확장을 준다. /고요아침·1만2천원

▲'문학춘추' 가을호 통권 128호
가을의 정취를 고스란히 담아낸 계간 '문학춘추'가 발간됐다. 이번 호에서는 다양한 세대의 문인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낸 가을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연륜과 사유가 깊은 고령 문인들의 원숙한 작품부터 신선한 발상과 창의성으로 가득 찬 젊은 문인들의 참신한 작품까지 다채로운 문학의 향연을 제공한다. 특히 소설가이자 시인인 문순태 작가 특집이 눈길을 끈다. 그의 문학적 여정을 통해 한국 문학의 현재와 미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시 신작에 박영하 한국문학 시론과 회상, 윤영훈 부이사장, 한희원 작가, 김중 시인, 박준수 시인, 정택택 시인, 아동문학 권영삼·노남진·양인숙·윤삼현, 수필 고평주·이진만 등 다양한 장르 작품과 작가를 만나볼 수 있다. /한림·1만2천원

▲모텔, 파라다이스=김미용 저자
2017년 계간 '웹북' 신인상과 2018년 '불교문예' 신인상을 통해 등단한 김미용 소설가의 첫 번째 소설집이 출간됐다. 이 소설집에는 모두 8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한 가지 공통점은 작중 화자들이 모두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여자 노인들의 로드 무비라 할 수 있는 표제작 '모텔, 파라다이스'에서 화자는 친구들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천국을 찾아 떠난다. 들고나는 사람이 많았던 다방에 적막이 찾아오자 덜컥 겁이 난 화자는 '다방을 지배했던 적막이 집'까지 따라붙자 '겁나게 좋은 디'라고 소문난 천국을 친구들과 함께 찾아 나선다. /문학들·1만5천원

▲B주류경제학=이재용, 토스 저자
돈이 오가는 곳을 찬찬히 뜯어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그 취향은 어떻게 돈이 되고, 트렌드의 선두에 서게 되는 걸까. 세상 모든 것에 알고 넓은 호기심을 가진 토스 유튜브 채널 머니그래피 제작진들과 숫자로 세상을 보는 이재용 회계사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B주류경제학'을 만들었다. 이 책을 통해 낯선 숫자에 감춰진, 의외로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면 Z세대의 취향부터 지금 가장 주목받는 트렌드까지 낱알이 파악하게 될 것이다. /오리자널스·1만9천800원

일상 속 크고 작은 무늬로 그려낸 삶 이야기

인간 존재 성찰 담아낸 장편소설 '날마다 시작'

저자의 과거·현재·미래 엮어낸 산문 '스물셋...'

전남대 독일언어문학과 명예교수 서용좌 소설가가 최근 작품집 2권을 발간했다. 도서출판 푸른사상에서 펴낸 소설집 '날마다 시작'과 산문집 '스물셋, 아무렇더라도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다. 장편소설 '날마다 시작'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보호자 사이의 이야기를 그려냈다. 일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인간의 존재를 성찰하는 모습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책 속 주인공은 요양보호사를 직업으로 가진 이다. 자신과 주변인의 삶에서 드러나는 사소한 사건들과 이야기를 통해 그 속에 감춰진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인간의 존재를 끊임없이 성찰한다. '지은이'라는 다소 특이한 이름을 가진 주

인공은 복지센터 소속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새롭게 돌봄 서비스를 맡게 된 80대 할아버지를 찾아가면서부터 이 소설은 시작된다.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간 집은 보호자가 맞아주는데, 차때는 아니지만 웬만한 일들에 반응하지 않는 할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다. 주인공은 매일 환자의 집에 방문해 식사와 약을 챙기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산책과 병원 방문을 돕는다. 점심 무렵에 출근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두 노인과 함께하는 게 일상이 된 주인공은 그들에게 힘이 되고, 의지된다고 느낄 때 보람을 느낀다. 바깥세상은 코로나라는 역병이 온 나라를 삼켜 슬픈 죽음들, 영원한 이

별을 맞이하기도 한다. 사물을 포함한 존재의 의미, 먼지도 하나의 존재라는 생각, 참담한 현실, 애곡되는 언어와 사색, 신앙에 관한 고찰이 이 책에서 진중하게 서술된다. 날마다 시작하고 날마다 미완성인 인생, 영원히 미완성인 인생에서 발견한 삶의 의미가 충만하게 다가온다. 산문집 '스물셋, 아무렇더라도 나를 사랑해준 사람'은 수필 나이 스물셋에 이르기까지 매년 써온 글을 묶은 책이다. 저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살아 숨 쉰다.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무늬를 그려내는 저자의 상념과 단상들이 펼쳐진다. 저자는 임시 시험 감독을 맡았던 때, 윗상으로 나타난 지각생을 보며 자신의 대학 입시 시절을 회상한다. 추운 겨울 입학시험을 보러 간 그녀는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게 되는데, 내치지 않고 받아준 교수님 덕분에 그녀는 무사히 시험을 치르게 된다. 교수님의 배려는 그녀가 교

단에 서며 지각생과 결석생을 휴대하지 않게 된 계기가 된다. 전화보다는 이메일을, 이메일보다는 편지를 선호하는 그녀는 저물어가는 오프라인 시대의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자유의지에 대한 단상, 예술과 문학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단 한 톨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무렇더라도 나를 사랑해줬던 어머니가 타들어 가는 불꽃처럼 떠난 이후 그 공백을 실감하기도 한다.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무늬를 그려내는 서용좌가 가진 삶의 철학과 인간 존재에 대한 사색이 이 산문집에 오롯이 녹아들어 있다. 한편 서용좌 소설가는 2002년 '소설시대'에 단편 '태양은' 발표로 등단했으며 장편소설로 '열하나 조각그림', '표현형', '흐릿한 하늘의 해', '숨', 연작소설 '희미한 인(생)', 소설집 '반대말-비슷한말'을 펴낸 바 있다. 이화문학상, 광주문학상, PEN문학상, 박용철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최명진기자

우크라이나·러시아서 보내온 두 편의 시각 기록물

노라 크루크 '전쟁이 나고 말았다' 출간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첫 1년 동안 국경의 양편에서 들려온 증언을 실시간으로 기록한 그래픽 노픽션이 발간됐다. '나는 독일인입니다'로 2018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한 노라 크루크의 '전쟁이 나고 말았다'(엘리·장한라 옮김)이다. 이 책은 전쟁과 역사와 죄의식에 대한 성찰을 감동적인 그래픽 서사로 구현해낸 결과물이다. 책의 저자 노라 크루크가 우크라이나 기

자 K와 러시아 예술가 D, 두 지인과 매주 주고받은 소식에 기초해 양 국 양편에서 들려온 증언을 52주 동안 실시간으로 기록했다. 2022년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비나치화, 돈바스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우크라이나의 나라와 문화를 절멸하려고 위한 침략 전쟁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진행 중인 그 전쟁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

나고 있는지는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각자도생이라는 명제가 전 지구적 레벨로 진행 중인 지금의 현실 속 미국 어딘가의 전쟁을 다룬 뉴스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별다른 충격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우리는 잊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잊어가고 있다. 노라 크루크는 그런 망각에 적극적으로 맞서고자 하는 예술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자신의 지인인 우크라이나 기자 K와 러시아 예술가 D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들로 부터 전쟁 첫 며칠간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



다. 그는 두 사람에게 그들의 경험을 주간 일기 형식으로 받고 거기에 자신의 일러스트를 더해 기록물로 만들어도 될지 물었고, 그들은 기꺼이 승낙했다. 그리고 그 기록물의 일부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연재되기도 했다. 크루크는 그들의 발화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일종의 정서적 시작점이 돼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쟁이 일상에 끼치는 끔찍한 여파를 이해하게 해 줄 수 있었다. /최명진기자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www.kjdaily.com

시내 지역: 중앙지국 222-8171, 산수지국 224-4188, 학운지국 673-6836, 화정지국 372-9140, 금호지국 376-7153, 풍암지국 603-0311, 노대지국 674-3581, 상수지국 453-2554, 광천지국 374-2120, 진월지국 676-2726, 봉선지국 673-6836, 백운지국 673-0123, 두암지국 266-1920, 농성지국 362-4102, 유동지국 222-8171, 운암지국 529-3548, 용봉지국 261-1503, 신가지국 954-1420, 양산지국 574-3745, 하남지국 951-9954, 운남지국 952-1687, 오치지국 261-9461, 문흥지국 261-9462, 일곡지국 573-3200, 첨단지국 971-7374, 치명지국 371-9584, 수원지국 955-0451,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목포지사 061)270-8689, 동목포지사 061)278-0740, 남목포지사 061)245-3797, 신안지사 061)980-8300, 순천지사 061)746-1600, 여수지사 061)651-6433, 나주지사 061)335-0005, 광양지사 061)793-6800, 구례지사 061)782-4696, 담양지사 061)383-5566, 곡성지사 061)362-5746, 고흥지사 061)832-6290, 보성지사 061)852-6644, 화순지사 061)373-7795, 장흥지사 061)863-6800, 강진지사 061)432-8899, 해남지사 061)535-5849, 영암지사 061)473-7151, 무안지사 061)453-3645, 함평지사 061)322-0882, 영광지사 061)353-5133, 장성지사 061)394-3636, 완도지사 061)555-0134,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